

금계-동강 구간

■ 코스 지도

사대부들의 유람과 민초들의 고단한 삶이 교차하는 길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금계-동강 구간	구간 설명	인트로
2	의탄마을_1	의탄마을, 의탄소	민속자료 / 생태
3	의탄마을_2	의탄 당산	민속자료
4	의중마을 입구	옷칠 장인의 손	마을 / 인물
5	벽송사	벽송사와 서암정사	문화재
6	의중언덕	변강쇠와 웅녀 이야기	민속자료
7	능선묘소	부처바위, 함양 독바위	생태 / 역사
8	용유담	유람록, 가사어 전설, 마적도사	민속자료 / 생태
9	송전마을과 삼굿터	송전마을 주변, 삼굿터	민속자료 / 마을
10	백연마을	와룡대, 이억년, 이조년	마을 / 인물
11	새우섬	한남군과 김문기	역사
12	구시락재	유람록/풍광	민속자료
13	동강마을 당산목	당산, 김종직	민속자료 / 생태
14	동강마을	마을유래, 엄천강	민속자료 / 생태

1. 구간소개

“아가씨, 아가씨. 다 왔어요.”

이런, 시골버스의 편안한 흔들림에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나 보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사 아저씨의 친절하 기억력 덕택에 나의 둘레길 여행은 무사히 시작된다.

아, 아침공기가 신선하다. 졸음에 겨웠던 머리 속까지 청량해진다. 이런 아침공기 속으로 발을 디더본 게 얼마만인지. 선선한 바람이 마음까지 설레게 한다.

금계마을과 동강마을. 동강마을과 금계마을. 오늘 걷게 될 이 길에선 제법 익숙한 역사의 한 도막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 단종과 세조의 왕위 싸움에 얽혀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 그들의 사연과 만난다. 왕자로서 단종의 복위를 주장했던 한남군과 사지가 찢기는 참형을 당한 김문기 선생, 세조를 욕하는 글을 지어 화를 당한 김종직 선생의 이야기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건조한 글씨로만 만났던 이야기들과 직접 대면할 생각을 하니 마치 사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든다.

이 길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형제간의 끈끈한 우애? 시골 아낙의 지고지순한 순애보? 이 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도록 인간과 어울려 살아온 지리산이니, 품고 있는 이야기도 무궁무진 하리라. 벌써부터 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진다.

2.의탄마을_1

지리산의 끝자락을 포근한 담요처럼 두르고 앉는 이곳은 의탄마을이다. 고려시대 때부터 특수 행정구역인 의탄소가 있었던 곳으로 여기에서 숲을 구워서 공납을 했다

그런데 이런 마을 내력과는 달리 지금 의탄마을의 ‘탄’ 자는 여울이라는 뜻의 한자로 되어있다. 여울이라면, 경사지고 좁은 곳을 빠르게 흐르는 냇물을 뜻하는 말일 텐데, 정작 마을 앞으론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다소곳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의탄교 아래로 흐르는 이 물줄기를 이곳 사람들은 임천이라고 부른다. 운봉과 인월을 거쳐 흘러온 강물과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온 냇물을 ‘만수천’이라 불렀으며 마천에서 용유담까지 흘러가는 냇물을 ‘임천’, 용유담에서 산청 어서리까지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엄천’이라 한다.

난간에 턱을 괴고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마을 어르신이 툭 한 마디를 던지신다. **“이 물은 냇물이 아니라 눈물이여, 눈물.”** 눈물이라고? 어리둥절해 있는 내게 어르신은 이 강에 숨겨진 사연을 말씀해주셨다.

지금은 이 의탄교가 단단한 모습으로 임천 위를 가르고 있지만, 원래 의탄마을과 강 건너 세상을 이어주던 다리는 따로 있었다고 한다. 강 건너편 왼쪽으로 보이는 굴다리 즈음에 말이다. 그러고 보니 굴다리 건너편에 잘려져 나간 다리의 흔적이 보인다. 이 다리는 흔들다리, 그러니까 현수교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고추나 보리 같은 작물들을 널어 말리곤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84년 7월 4일 지리산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불어난 물살이 다리를 덮치고 말았다고 한다. 애써 기른 곡식이 비에 젖을까 서둘러 다리 위로 갔던 사람들도 함께 말이다. 그래서 이 마을에선 해마다 7월 4일이면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이 눈물로 흘러 또 하나의 강을 이룬다.

3. 의탄마을_2

예로부터 물길을 낀 마을은 풍파가 잦다고 한다. 흐르는 물길을 따라 드는 사람도 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일까? 지리산으로 통하는 이 마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나무의 기운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시골 마을 어귀에 서 있는 큰 나무를 당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산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평안을 지켜 주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

600년이 넘도록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들어왔을 의탄 당산. 이 나무의 나이테에는 행복한 추억만큼이나 많은 슬픈 기억도 골골이 새겨져 있으리라. 잠시 당산나무 아래 등을 기대고 앉으니 나무가 풀어놓는 이야기가 들리는 듯하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의탄마을의 당산입니다. 기억하기도 힘들만큼 오래 전부터 이 자리에 서 있었지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냐구요? 어디 보자....아!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주 오래 오래전이었어요. 이 마을엔 성실하고 성품이 온화하면서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지요. 끼니를 이을 양식이 없으면서도 오직 책을 읽는 것을 낙으로 삼는 청년이었어요. 맘씨 고운 부인은 타박한 번 하지 않고 품을 팔아 남편을 뒷바라지 했지요. 그런데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선비는 과거에 두 번씩이나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그 때부터 부인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제게 와서 밤새 기도를 했지요. 그 기도가 어찌나 간절한지 제 마음까지 아려올 지경이었죠. (한숨) 그런데, 제 힘이 부족한 탓이었을까요, 세 번째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난 선비가 그만 도적들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 사실을 알 리 없던 부인은 매일 밤 제 발치에 정안수를 떠다 놓고 지성으로 남편의 급제를 빌었구요. 그렇게 1년이 지났지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부인은 그만 병을 얻게 되었고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버리고 말았어요.

어허,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슬프게만 끝나버린 건 아니에요. 이 부부를 안타깝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제게로 와서 두 영혼을 위해 큰 제사를 지내주었거든요. 또 못다 이룬 선비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리의 젊은 유생들은 제 그늘 아래에 모여 시를 짓고 학식을 겨루었지요. 덕분에 그 후로 이 마을에선 장원 급제하여 큰 인물이 된 선비가 많이 나올 수 있었답니다.”

당산의 이야기가 끝나니 어느새 길을 재촉하는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의 수호신 역할을 해준 당산나무에게 ‘고마워’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고요히 흐르는 임천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4. 의중마을 입구

당산을 등지고 의중마을 길로 내려선다. 가냘프게 솟아있는 옷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따라 걷다보니 곳곳에 ‘장시돌’이란 이름이 쓰여 있는 홍보물이 보인다. 누굴까? 이 시골마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 만한 장인이라도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어라, ‘장시돌’이란 이름 석 자가 쓰인 문패가 나타난다.

혹여나 손님에게 오는 연락을 놓칠세라, 아들의 전화번호까지 꼼꼼하게 적혀있는 담벼락 옆으로 대문도 없이 마당이 펼쳐진다. 호기심에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어르신의 건장한 목소리가 들린다. “옷 사러 왔어? 우린 화칠 밖에 안하는데.” 놀라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보며 어르신은 말씀을 이으신다.

“생칠이라카는 건 나무에 세아 놓고 흙집을 내는 게 생칠, 화칠이라는 거는 찌가지고 불에다 따뜻하게 구워서 낸 게, 불로 낸 기 화칠. 불 화짜 아이라.”

여름에 옷나무에 칼집을 내어서 진액을 받아내는 것이 생칠이고 옷나무를 잘라다 구우며 진액을 받아내는 것이 화칠이라는 설명이시다. 생칠로 얻은 진액은 주로 가구나 그릇에 칠을 하는데 쓰고 화칠은 약으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옛날 병원도 멀고 약국도 귀하던 시절, 정월이면 이렇게 화칠로 얻은 진액을 한 종지 마시면 일 년 내내 무탈히 지낼 수 있었다며 말을 이으신다. 심지어는 뱃속 기생충도, 머릿니까지도 한 방에 없어진다고 아이처럼 자랑을 늘어놓으신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땅속에는 금이고, 땅위에는 옷칠, 옷이 금이다. 확실히 좋은 기라.”

말씀을 하시던 어르신이 나를 작업장으로 이끄신다. 옷나무가 장작불 위에서 돌돌 구르며 가지런히 나 있는 흙집을 통해 진액을 떨구고 있다. 어르신이 대나무 대롱에 얼른 진액을 받으신다. 이 일을 다 혼자서 해내시는 것일까.

“혼자 할라믄 힘들지. 우리는 여 영감 할마이 둘이서 많이 내. 불에 올려놓고 할마이 뿌리고. 아무리 안되도 두 손, 세 손이야 맞아.”

어르신의 말씀에서 쓸쓸함이 느껴진다. 주변 마을에서 옷칠을 하는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을 뜨시거나 편찮으셔서 작업을 못하신다니 그 허전함이 오죽하실까. ‘이제 곧 나 혼자 남겠어’라고 하시면 애써 웃으시는 모습에 마음이 더 아려온다. 50년이 넘는 옷 작업에, 굳은살이 박혀 턱턱 갈라진 채 검게 변해버린 어르신의 손을 꼬옥 잡아드리고 마당을 나선다.

5. 벽송사

온통 구절초 꽃으로 덮인 입구를 지나니 단아한 절집이 그림처럼 다가온다. 벽송사다. 나무의 색 그대로를 간직한 채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지리산과 어울려 서 있다. 절터의 뒤편을 올려다보니 두 그루의 소나무가 눈에 띈다. 절집을 호위하듯 묵묵히 서 있는 소나무, 벽송사란 이름이 이 두 그루의 푸른 소나무와 참으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벽송사란 이름은 실은, 조선시대에 이 절을 지은 스님의 존함을 딴 것이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450여 년 전, 전라도 부안 땅에서 태어난 송지엄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스무 살에 장원 급제 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무상함을 느껴 지리산의 고승을 찾아왔다. 하지만 고승은 깨우침을 주기는커녕 매일같이 산에서 싸리나무를 베어다 광주리를 만들어 팔게 했다. 이에 염증을 느낀 지엄은 산을 내려가 버린다. 그런데 산 아래 마을에 도달한 순간 ‘지엄아, 너는 도를 받아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지엄은 다시 스승을 찾아가 도를 깨우치게 되고 후에 벽송대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사찰 마당을 조용히 걸어본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마저도 고요히 참선에 들어있는 것 같아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걷다 보니 ‘인민군 야전병원’이라는 글씨가 쓰인 낡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신성한 기운마저 감도는 이 조용한 사찰에 어울리지 않는 저 글귀는 뭘까? 표지판 속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글을 읽어본다. 아, 이곳이 6.25 당시 빨치산의 야전병원으로 쓰였구나. 그리고 보니, 그 때문에 벽송사가 불태워졌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전쟁의 아픔 때문에 구도의 길을 택했던 벽송대사의 절터가 전쟁 때문에 상처를 입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것일까.

썩썩한 마음에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디서 나타난 걸까, 은밀한 분위기의 돌문이 나타난다. 궁금중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조각으로 가득 찬 비밀의 정원이 나타난다. 아담한 연못 뒤로 석굴처럼 들어선 법당도 보인다. 아, 여기가 서암정사구나. 한국전쟁 때 이곳 지리산에서 죽어간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지었다는 작은 절집. 지리산 자투리땅에 지어진 이 암자가 벽송사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마저 든다. 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지어지고 있다는 서암정사. 이 절이 완성되는 그 순간 분단의 아픔도 끝이 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6. 의중 언덕

깎아지른 듯한 경사 위로 아슬아슬하게 들어선 마을, 의중윗말에 올라선다. 저 멀리 삼봉산 오른쪽으로 오도재가 보인다. 희대의 연인, 변강쇠와 옹녀가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자 걸었던 마지막 여정, 오도재. 고개를 넘어 지리산 자락으로 온 두 사람은 오도재 언저리에서 여생을 보냈다. 언제였던가,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펼쳐졌던 구성진 변강쇠타령이 다시 들려오는 듯하다.

마천 땅에 장이 없었던 옛날, 마천 사람들이 멀리 함양장까지 가려면 저 오도재를 넘어야 했다고 한다. 무거운 소금가마와 새끼 돼지를 이고 지고 고개를 넘던 옛 사람들. 그들의 땀방울이 무던히도 오도재를 적셨으리라.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 사이에 등지를 들고도 변강쇠는 어쩔 그렇게 철이 들지 못했던 걸까. 지리산에 들어와서도 변강쇠의 게으름은 여전했으니 말이다. 하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는 거겠지. 하루는 보다 못한 옹녀가 나무라도 해 오라며 내쫓았는데, 마지못해 산중으로 들어간 강쇠는 잠만 실컷 자고 말았다고 한다. 깨어보니 해는 이미 저물어 있고, 급한 마음에 강쇠는 길가의 장승을 빼들고 집에 돌아와 군불을 지폈다. 이에 화가 난 장승신이 팔백 가지의 병을 주어 변강쇠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지금도 마천 일대에는 장승들이 많이 남아있다. 아마도 변강쇠가 나무를 하던 그 시절엔 더 많은 장승이 있었겠지? 장승을 뽑아들고 집으로 향하는 변강쇠의 모습을 상상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7. 능선 묘소

의종마을과 용유담 사이 산길을 걷는다. 산꾼들에게는 아기자기한 산책길일지 모르겠지만, 도시의 아스팔트길에만 익숙한 내겐 행군길 같기만 하다. 행여 넘어질세라 발만 보고 걷다가 한쪽으로 삐죽이 나 있는 갈림길을 발견한다. 어디로 통하는 길일까? 잠시 한숨 돌릴 겸, 길을 벗어나 본다. 야트막한 무덤을 살짝 피해 들어가니 막다른 길 끝에 시원스런 풍광이 펼쳐진다. 지리산이 그려놓은 절묘한 곡선들을 감상하며 큰 숨을 쉬어본다. 산뜻한 공기가 온 몸에 퍼지는 듯하다. 지친 다리도 다시 힘을 얻는다. 그럼, 다시 출발해 볼까, 들어왔던 길로 나가려는데 누군가가 다가온다. 편안한 차림이 이 길에 익숙한 사람인 듯하다. 살짝 눈인사를 하고 지나치려는데 대뜸 말을 건네 온다.

“다 찾으셨어요?”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고 있는 나를 보며 말을 이으신다.

“여기 오면 다들 그냥 ‘아, 경치 좋다’ 하고 지나치는데요, 이곳의 진정한 재미는 숨은 풍경을 찾는 거거든요. 저기 멀리 보이는 봉우리 오른쪽 능선을 보세요. 평평한 듯하면서 울퉁불퉁한 곡선으로 된 능선 말이죠. 뭔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부처바위예요. 바위가 하나라는 건 아니구요, 바위로 된 저 능선 모양이 꼭 누워있는 부처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 그리고 보니 오른쪽 끝은 부처님의 머리, 왼쪽의 툭 튀어나온 봉우리는 부처님의 발끝 같아 보인다.

“그리고 부처님 발치 아래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위 보이시죠? 저게 지리산의 명물, 함양독바위에요. 조선시대 유명한 성리학자였던 점필재 김종직 선생이 함양 땅에 다녀가면서 쓴 기행문을 보면 ‘독녀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부인네가 이 바위 안에서 혼자 도를 닦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무심히 넘겼던 풍경이 새로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숨은 그림을 눈으로 찾고 있다.

“또 잘 보이진 않지만 독바위 아래엔 선녀굴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선녀굴이라, 하늘나라가 지켜워 몰래 빠져나온 철없는 선녀가 숨어 지내던 곳일까?

상상의 나라를 펼쳐고 있는데 다시 말을 이으신다.

“고운 이름이 붙어있지만 실은 아픈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죠. 저기가 바로 마지막으로 남은 세 명의 지리산 빨치산의 은둔지였거든요. 그 중 두 사람은 사살당했고 여성대원이었던 정순덕은 산청으로 숨어들었다가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지요. 그리고 왼쪽 산등성이에 파란 지붕 집 보이시죠. 그 옆으로 아주 푸지게 우거진 소나무 숲이 보이세요? 저기가 바로 세진대입니다. 소나무 쉼터죠. 여기서 잘 안보이지만 저 숲 속엔 장정 50명이 충분히 앉아 쉴 수 있는 넓은 바위가 있어요. 옛날 옛적에 저기서 마적도사가 산신령과 장기를 두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저 멋지다고만 생각했던 이 풍광 속에 이런저런 사연이 숨어있었다니.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가 맺었을 인연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금 발아래 풍경을 내려다본다.

8. 용유담

*용유담 아래 물은 기름처럼 맑아서
하늘 그림자 말간니 머무는데 나무 그림자 뽐뽐하게 드리우니
사람의 한 치 마음도 참으로 이와 같으니
거센 물결 지나자마자 안온한 흐름이로다*

영남학파의 시조였던 점필재 김종직 선생이 이곳을 지나며 썼다는 시를 가만히 읊어본다. 어찌하여 이런 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겹겹이 늘어선 바위들 사이로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흘러내린 물길에 머무는 곳, 이곳은 용유담이다. 다리 위에 서서 깊고 평평한 호수 같은 물속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니 마치 시간이 멎어버린 듯한 고요함이 느껴진다.

깊은 물 만큼이나 두터운 바위 숲은 용유담의 풍광을 더욱 황홀하게 만들어 준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한 바위들에는 저마다의 전설도 전해내려 온다. 그중에서도 용유담 한 가운데 위치한 ‘나귀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지리산엔 마적도사가 살았는데, 도사는 이 엄천강 건너로 자신이 키우던 나귀를 보내서 먹거리를 싣고 오게 했다고 한다. 그 때만 해도 이런 다리가 없어서, 도사는 막대기를 다리로 둔갑시켜서 나귀가 용유담을 건너오게 했다. 강 건너에서 나귀가 큰 소리로 울면 도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리를 놓으러 나가는 식이었다. 하루는 용유담에서 용 아홉 마리가 시끄러운 싸움을 벌인 탓에, 장기에 집중하고 있던 도사는 그만 나귀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만다. 주인을 기다리다 울다 지친 나귀는 그만 쓰러져 죽어서 바위가 되었는데, 그 바위가 바로 나귀바위다.

나중이야 나귀의 죽음을 안 도사는 화를 내며 장기판을 부숩버렸고, 그 부서진 조각들이 이 용유담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바위들은 장기바위라고 불린다고 한다.

지금은 그 바위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용유담 다리 위에 서 있노라니, 강 건너에서 처량하게 울부짖는 나귀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이 골짜기에 울리는 듯 하다.

9. 송전마을

송전마을 어귀로 들어서니 작은 버스정류장이 나를 반긴다. 하나, 둘, 셋. 버스 시간표에 적힌 정차시간은 하루 세 번 뿐이다. 하루에 단 세 번만 세상과 연결되는 마을, 도시에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느긋함이다.

마을을 둘러보니 다채로운 모양의 민박집들로 가득하다. 지친 여행자들을 어서 빨리 맞으려는 듯 대문을 활짝 열고 서 있는 민박집들을 보니 벌써 마음이 푸근해진다. 딱딱한 등산화를 벗고 부은 발을 주무르며 지리산의 맑은 기운을 다시금 받고나면 또 다시 길을 떠날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을 쪽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동물울음소리가 들린다.

낡은 담배가게 간판을 단 폐가에서 들리는 소리다. 인적도 없는 집에 돼지가 있다니, 궁금한 마음에 살짝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대문 바로 왼쪽, 나무로 지은 축사 안을 들여다보니 작고 까만 돼지 한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다. 아, 이 돼지가 바로 송전마을의 퐁돼지구나. 송전마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돼지를 화장실 아래에서 키우는 동네로 유명했다고 한다. 지금 돼지가 살고 있는 축사의 낮은 2층이 아마도 사람들이 불일을 보던 곳이라. 저 낮고 불편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 꼴꼴대는 돼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불일을 봤을 모습을 상상하니 슬그머니 웃음이 난다.

폐가를 나오는데 지나던 어르신이 한 마디 건넨다. *“송전마을이 퐁돼지로만 유명했던 게 아니라 닥종이로도 역수로 유명했제. 저 쪽으로 가 보소. 삼굿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네.”* 어르신이 손짓을 따라 와룡대 쪽을 향해본다. 무심히 지나쳤더라면 보지 못했을 돌무더기가 눈에 띈다.

검게 그을린 흔적이 아직도 생생한 걸 보니, 이 돌무더기가 바로 닥나무를 삶았던 가마이겠지. 위쪽으로 올라가보니 시멘트로 만들어진 큰 솔도 그대로다. 가마에선 연신 허연 김이 펄펄 피어오르고 집집마다 널어놓은 하얀 종잇장이 바람에 나풀거렸을 송전마을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송전마을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질 좋은 창호지 생산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건너온 값싼 한지에 밀려 더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돌무더기 틈새로 삐죽이 올라온 닥나무의 어린 가지들만 과거를 추억하는 듯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다.

10. 백연마을

형 아니! 아우야!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게냐?

아우 좀 전에 길에서 주은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형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 그 귀한 황금을 어찌하여 강물에 던져 버렸느냐 말이다.

아우 제가 어찌 황금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형 현대?

아우 평소에 우애가 두터웠던 우리 형제가 아닙니까? 현대 황금을 주워 가지니까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형이 없었더라면 내가 황금 두 덩이를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이 황금이 우리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아, 내가 비록 아우이지만 나보다 더 깊은 속내를 가졌구나. 옳다. 네 말이 옳아. 이까짓 재물이 어찌 우리의 우애보다 중하겠느냐. 나도 네 생각을 따르마.

강 건너, 점잖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백연마을을 보니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우애로운 형제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억년과 이조년의 고향이 바로 이곳, 백연마을이다. 이 마을의 이름도 이 형제들의 맏형인 이백년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이었던 이억년은 고려 말 국정이 혼란해지자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기르는데 전념했다고 한다. 선생이 이 마을에 쏟았던 애정이 컸던 만큼 마을 사람들도 선생을 따르고 받들었으리라. 그 때문일까, 선생의 묘소는 마을 오른편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 곱게 단장되어 있다.

마을 앞 강가, 섬처럼 솟아있는 한 무더기의 바위들로 눈길을 옮겨본다. 수백 명도 앉을 수 있을 듯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들이 소담스럽게 모여 만들어낸 비밀의 정원, 이곳이 바로 와룡대다.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지리산 일대를 유람했었는데, 지리산의 수많은 절경 중에서도 이곳 와룡대는 특히 인기 있는 곳이었다. 소나무 숲 사이로 삐죽이 보이는 작은 비석이 바로 그 증거이다. 조선 말기의 강신영이라는 문인이 해마다 일곱 명의 친구들과 이곳에서 계모임을 했는데, 이들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이 계모임을 기념하는 뜻에서 세운 것이 바로 저 비석이니 말이다. 중대한 국사도, 위대한 가정사도 아닌 계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까지 세우다니, 옛사람의 풍류에 슬그머니 시샘마저 난다.

11. 새우섬

굽이쳐 돌아나가는 강물 위로, 지금은 사라진 새우섬의 흔적을 좇아본다. 강물 오른쪽으로 끊어진 산자락처럼 보이는 곳, 그 앞으로 옛날엔 작은 섬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 섬엔 조선시대를 살았던 한 왕자의 원혼이 깃들어 있다.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맞서 단종의 복위를 주장했던 한남군, 그가 바로 주인공이다. 한남군은 세종대왕의 열두 번째 아들이었다. 끝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지 못한 한남군은 이곳 새우섬으로 유배되었고, 유배 4년 만에 마음의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왕자의 절개를 기리고자 새우섬에 '한오대' 라는 정자를 지어주었지만, 물난리에 정자도 섬도 모두 떠내려가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한남군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우섬 뒤쪽 강 건너 마을을 한남마을엔 한남군의 집터가 있는데, 이 집터마저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거기에 집을 지으면 사람이 죽거나 무서운 재앙을 당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도 사람의 온기를 담지 못한 채 폐허로 남은 집터. 그곳엔 주춧돌만이 홀로 남아 쓸쓸하게 역사의 뒷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왕자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뿐인데, 왕자의 혼은 이렇게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한남군의 유적지를 복원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사육신 중 한 사람이었던 백촌 김문기 선생의 후손들이 바로 그들이다. 조선 전기 함길도 관찰사와 공조판서를 지낸 백촌 김문기 선생의 영정이 이곳 한남마을에서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정이 발견되었을 뿐 한남군과 김문기 선생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는 후손들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조상과 뜻을 같이한 동지를 기리다니 참으로 고운 마음이 아닐 수 없다. 새우섬을 바라보는 내 눈길마저 포근해진다.

12. 구시락재

탁 트인 풍광에 나도 모르게 ‘아!’ 하는 감탄사를 내뱉는다. 구시락재 아래로 펼쳐진 그림같은 풍경. 소담스런 마을들과, 마을을 겹겹이 둘러싸고 서있는 장대한 지리산 자락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유유히 흐르는 엄천강. 이런 극적이면서도 사랑스런 풍경은 돌레길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엄천강 너머 작은 마을로 눈길을 옮겨본다. 옛날 절집이 있던 땅에 생겨났다 하여 절터마을이라 불리는 곳, 원래 이 땅에는 엄천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엄천사는 신라시대에 왕의 명령으로 세워진 큰 사찰이었다. 용유담에서부터 이어진 엄천강도 이 절의 이름을 빌린 것이라니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지금은 그저 이름으로만 남은 엄천사, 그 절터에 들어선 이 마을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지리산 마을일 뿐이다. 하지만 이 땅엔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각별한 사랑이 서려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김종직 선생은 1471년부터 6년 동안 이곳 함양 땅의 군수를 지냈는데, 당시 전국 각 지방에선 그 땅에서 나는 특산물을 나라에 공물로 바쳐야 했다. 그런데 무슨 조화였을까, 함양에서 요구한 공물 목록에는 이곳 함양 땅에선 찾아볼 수도 없는 ‘차’가 들어있었다. 함양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고 전라도에서 차를 사서 서울로 보내야만 했다. 김종직 선생은 이런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 마침내 <삼국사기>에서 신라시대 당나라에서 얻어온 차씨가 지리산에 뿌려졌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엄천사 근처에서 그 씨를 구할 수 있었고 그 씨로 마을 뒤편에 차밭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백성들의 세세한 고충들에 귀 기울이고 백성들의 소소한 살림살이마저 함께 걱정하고 보듬어 주었던 김종직 선생. 그의 정신이 새삼 아쉬워 물끄러미 차밭만 바라본다.

13. 동강마을 당산목

마을 뒤편으로 키 큰 나무들이 팔을 벌린 듯 숲을 이루고 있다. 동강마을의 당산쉼터다. 길손들이 앉을 자리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다. 이런 곳을 지날 때면 다리가 무거워진 것도 아닌데 괜히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그늘을 찾아 앉게 된다. 나와 같은 기분이었을까, 지리산을 유람했던 점필재 김종직 선생도 이곳 당산 아래에선 가던 길을 멈추고 쉬어갔다고 한다.

선생은 함양군수를 지낼 당시에 쓴 지리산 유람기에서 이곳 동강마을 당산터를 ‘화암’ 이라고 불렀다. 500여 년 전, 이곳에서 선생은 어떤 감회를 느꼈기에 ‘꽃바위’ 라는 고운 이름을 이곳에 선사한 것일까? 팽나무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으니 김종직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나는 영남(嶺南)에서 성장하였으니, 지리산은 바로 내 고향의 산이다. 그러나 남북으로 떠돌며 벼슬을 하고 세속 일에 골몰하여 나이 40이 되도록 아직껏 한 번도 유람을 하지 못했다. 봄에 함양 군수(咸陽郡守)가 되어 내려와 보니, 지리산이 푸르게 우뚝 솟은 것을 눈만 쳐들면 바라볼 수가 있었으나, 흉년의 민사 처리에 바빠서 거의 2년이 되도록 또 한 번도 유람하지 못했다. 이것이 마음속에 항상 걸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금년 여름, 친구가 나 있는 데로 와서 이 산을 유람하기를 청하였다. 나 또한 생각건대, 날로 다리의 힘이 더욱 쇠해가는 터이니, 금년에 유람하지 못하면 명년을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더구나 때는 추석이라 내리던 흠비도 이미 말끔하게 개었으니, 보름날 밤에 천왕봉(天王峯)에서 달을 완상하고, 닭이 울면 해 돋는 모습을 구경하며, 다음날 아침에는 사방을 두루 관람한다면 일거에 여러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가 있으므로, 마침내 유람하기로 결정하였다.

친히 지내던 이들과 함께 마침내 엄천을 지나 동강 당산터에 도달하였다. 지친 다리를 쉬고자 잠시 자리를 청하였는데 당산터 뒷산 봉우리의 모양이 흡사 연꽃의 봉오리와도 같았다. 오호라, 내가 앉은 이곳이 바로 꽃바위구나. ”

바쁜 일상에 치이고 쫓겨 선뜻 떠나지 못하는 현실이 비단 현대인의 비애만은 아니었나 보다. 연꽃잎의 부드러운 품 안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았을 선생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14. 동강마을

엄천강을 낀 평화로운 마을, 동강마을을 지난다. 마을길을 걷다 보니 한 무리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시골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기에, 호기심이 일어 아이들 곁으로 넉넉히 다가간다.

아이들은 연신 주변을 왔다갔다하며 뭔가에 열심이다. 아이들 사이를 넘겨다보니 돌무더기가 쌓여 있다. 구덩이를 파고 돌맹이로 이글루 같은 집을 지어 놓은 것이다. 한 아이가 두 손 가득 찹쌀을 가져와 그 위에 얹는다. 그러자 대장인 듯 보이는 아이가 봉지에서 뭔가를 쏟아놓는다. 와~ 하고 아이들의 탄성이 터진다. 밭에서 막 캐온 듯 흙이 잔뜩 묻은 감자다. 오늘은 녀석들의 감자 파티가 보다. 찹쌀 위에 부지런히 감자를 올린 아이들이 주변으로 흩어진다.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고운 흙을 잔뜩 가져와서는 자그마한 손으로 감자 위를 꼼꼼히 덮는다. 돌더미 아래에 불을 지피자 금세 돌맹이가 별걸게 달궈진다. 대장 녀석은 흙더미 위로 물을 붓는다. 그러자 흙더미 사이사이로 뽀얀 김이 새어나온다.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찹쌀을 삼키고 있다.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리는 나를 한 아이가 붙잡는다. “누나, 먹고 가요. 삼갯에 찢 감자는 진짜 짱이거든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감자삼갯이구나. 삼나무를 삶던 큰 찹쌀통인 삼갯에 감자를 찢 먹다니, 도시 아이들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감자가 벌써 다 익었나 보다. 어느새 아이들은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벗기고 있다. 한 아이가 뽀얗게 속살이 드러난 감자를 불쑥 내민다. 고마운 마음에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른 느낌이 든다.

시골 마을의 여유 덕분일까, 이렇게 동강마을에선 음식을 장만하고 먹는 일마저도 놀이가 된다. 겨울철엔 이곳 동강마을 사람들은 신나는 고기잡이를 한다고 한다. 큰 망치로 물속의 돌맹이를 내리치는 것이다. 그러면 돌맹이 아래에서 겨울잠을 자던 물고기들이 순간 기절을 하게 되고 이 때 돌맹이를 들어내면 겨울 낚시는 간단하게 끝이 난다. 신나게 물속을 텀벙거리다 보면 어느새 개구쟁이 꼬마시절로 돌아가 있는 어른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운 고기잡이를 하게 된 건 이곳 동강마을이 엄천강과 진한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란단다. 맑고 깊은 엄천강 민물고기들은 오래도록 동강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 주었으리라.

웃으며 즐기며 함께 차려내는 동강마을만의 소박한 식탁이 새삼 부러워진다.